

“책 좀 내지 맙시다”

허연 | 시인 · 《매일경제신문》 문화부 기자

난세(亂世)다. 책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책도독은 도둑도 아니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왜 ‘책’에 대해 이같은 헌사를 바쳤을까.

한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동안 집중된 한 인간의 에너지와 가치 때문이다. 세상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책을 훑친 사람을 사리사욕을 위해 돈이나 보석을 훑친 사람과 구별했던 것이다. 한 사람의 공부와 경험과 깨달음이 종이나 횡으로 다시 그 사람을 관통하고 나와 빛어진 책은 돈이나 보석과는 구별해야 하는 다른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책은 하나의 ‘프린트물’이 돼버렸다. 저서를 펴낸 것이 이력서나 약력에 한줄 올라가는 통과의례가 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책의 가치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책은 프린트물이 되고 있다.

기자들이 내는 책부터 반성해야 한다. 기자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책을 내는 것을 공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기자들이 기사를 모아 책으로 내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기사’는 책이 되기엔 부적합하다. 그 내용이 기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사는 자기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닌, 취합된 정보의 집합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넣은 저

서가 되기엔 함량미달이다.

교수들 역시 책을 자신의 중요한 이력의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농후하다. 교수들이 내는 책 중에는 물론 양서도 많다. 그러나 태작도 많다. 외국 책을 상당부분 도용하거나 심지어는 조교나 학생들이 일정부분을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는 몇 년에 걸친 연구결과를 집대성했다는 수식어를 붙여 “나는 000국장 동창이고 000부장 선배”라고 하면서 신문사 윗사람을 판다. 거기다 자기와 친한 교수에게 아예 서평까지 받아서 보낸다. 이렇게 보내온 서평은 대부분 비평이 아니라 ‘주례사’다.

기업 경영자나 각종 기관 및 단체의 장들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16대에도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자 전직 정보기관의 고위간부인 어떤 인사의 경우 자신이 번역하지도 않은 책을 자신이 번역한 것처럼 만들고 심지어 서문까지 출판사 직원에게 대신 쓰게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최근 눈에 자주 띄는 연예인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컴퓨터 책이나 주식투자 책도 상당수 대필협회가 짙다.

일반인들 역시 책을 우습게 보기는 마찬가지다. 그냥 가족끼리의 추억담이나 일기장이나 남기면 좋았을 수준의 글을 너도나도 책으로 낸다. 세상에 자기만 자식 키운 것도 아닌데 자식 이렇게 키우라고 책을 내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책을 내고, 정년퇴직했다고 책을 낸다.

책은 한 사람의 정신적 궤적을 비추는 정직한 도구다. 사람들은 이 도구의 영향을 받아왔고 이 도구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꿔 왔다. 그래서 책은 위대했고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이 도구의 순도(純度)가 위협받고 있다. 책 표지에 이름만 올리면 된다는 몰염치 때문에 책은 이제 더 이상 책이 아니다. 이제 책도독은 도둑이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주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장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